



**현대모비스, 양궁 통한 건강한 체육문화 조성**

현대모비스는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양궁을 정규수업 과정이나 방과 후 활동적인 학교스포츠클럽에 도입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충남 천안시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 /현대모비스



**LX하우시스, 청주 '해오름집' 새단장 완료**

LX하우시스는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인 '해오름집' 개보수를 끝내고 지난 3일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리모델링 완공식에서 (왼쪽부터)LX하우시스 품질·제조혁신담당 노학만 이사, '해오름집' 박종선 시설장, 한국해비타트 조윤경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하우시스



**롯데마트·슈퍼, 임직원 가족과 영월 농촌 체험**

롯데마트·슈퍼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군에서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마트·슈퍼 임직원과 가족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쇼핑



**소진공, 한국부패학회와 청렴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부패학회와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에 나선다. 소진공은 6일 대전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한국부패학회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 공정성·신뢰를 위한 청렴 생태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진공

**'박카스배' 골프대회 9일 개최**

동아제약이 골프 꿈나무들의 뜨거운 경쟁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 골프 주역을 육성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오는 9일~10일 제주 골프존카운티 오라CC에서 '2026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규정에 따라 올해 선수 등록을 마친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3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2세 이하부, 15세 이하부, 18세 이하부로 구분해 1일 18홀씩 이틀간 총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CSI까지 품었다... 삼성전자, 서비스 평가 '썩쓸이'**

NCSI 전자제품 AS 3년 연속 1위 올해 서비스 품질 평가 '전관왕'

삼성전자서비스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애프터서비스(AS) 부문 1위에 오르며 올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를 모두 석권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6일 발표된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NCSI 조사에서 전자제품 AS 부문 1위에 선정됐다. 해당 부문이 신설된 2024년부터 3년 연속 정상치를 지킨 것으로 올해 조사에서는 서비스 만족도와 서비스 기대수준 등 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NCSI는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해 부문별 1위 기업을 발표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올해 국내 주요 서비스 품질 평가 1위를 모두 석권했다. 지난 2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서비스센터 부문 1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삼성전자서비스

위에 오른 데 이어 6월에는 산업정책연구원 주관하는 '국가서비스대상' 가전 AS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 2일에는 한국표준협회의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가전·휴대전화·컴퓨터 AS 3개 부문 1위를 휩쓸었다.

경쟁력의 바탕은 엔지니어 기술 역량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986년 업계 최초로 '서비스 기술경진대회'를 도

입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서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엔지니어를 'CS 달인'으로 선발해 우수 인재를 육성해 왔다. 자체 운영하는 '엔지니어 기술자격 평가' 제도는 체계적 운영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인증을 획득했다. 이 평가를 통과해 최고 기술 역량을 인증받은 엔지니어는 'T

M(TechnicalMaster)'으로 선발되는데, 전체 엔지니어의 0.3%인 34명만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혁신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도입한 스마트 진단 프로그램 'HASS(Home Appliance Smart Service)'는 출장 서비스 현장에서 가전제품의 상태와 고장 원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앞서 삼성전자서비스는 스마트싱스(SmartThings) 기반 'AI 자가진단' 기능으로 고객이 제품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이른 더위에 대비해 한 달간 '에어컨 사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며 스마트싱스 '에어컨 인공지능 진단'으로 냉매 불입량, 모터 동작 등을 정밀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넥센타이어, 칭다오 거점으로 中 공략 한국엔컴퍼니, 그룹 ESG 보고체계 구축**

중국 칭다오시 대표단 한국 방문 현지 대응 전략·협력 방안 논의

넥센타이어가 중국 현지 자동차 시장 공략에 힘을 싣는다.

넥센타이어는 지난 2일 중국 칭다오시 대표단이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더넥센유니버시티'를 방문해 중국 시장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칭다오시 정부 주요 지도자들의 방한 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린강 칭다오시 시장을 비롯해 가오리핑 산동성 항구그룹 이사장 겸 총경리, 리후청 칭다오시 정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칭다오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한 현지 시장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타이어 반덤핑 관세

압박에 나서면서 현지 생산타이어 판매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는 중국 칭다오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중국 생산법인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베이징현대를 비롯해 BYD, 립모터 등 현지 완성차 업체로 OE(신차용)타이어 공급을 확대하며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는 중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플랫폼 투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투후 경영진을 마곡 중앙연구소로 초청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중국 우수 대리상 임직원 60여 명을 초청해 브랜드와 제품 경쟁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양성운 기자 ysw@

중장기 실행 과제 구체화

한국엔컴퍼니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한온시스템 등 주요 계열사를 아우르는 그룹 통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체계를 마련했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ESG 관리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실행 과제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엔컴퍼니그룹사업형지주회사

한국엔컴퍼니가 ESG 경영 성과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담은 '2025/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ESG 팩트북을 ESG 보고서 체계로 고도화해 발간한 첫 결과물이다. 한국엔컴퍼니는 이를 통해 그룹 주요 계열사의 ESG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환경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양성운 기자

**가스안전공, 김홍철 신임 기술이사 취임**

석유화학진단처장 등 역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임 기술이사로 김홍철 전 수소안전기술원장(사진)이 취임했다. 가스안전공사는 6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본사에서 신임 김홍철 기술이사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신임 기술이사의 임기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28년 7월 5일까지 2년이다.

김 신임 기술이사는 공사내에서 예



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장, 울산지역본부장, 석유화학진단처장, 수소안전기술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석유화학진단처장 재임 당시 정유 및 석유화학시설 진단 업무에 로봇과 IT 기반의 첨단 안전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영주 스토리 담은 음악극 25일 개막**

창작 융복합 공연 '아버지의 계절' 경북도 후원 경북문화재단 주최

지역 문화콘텐츠의 자생력과 예술적 가치를 동시에 갖춘 새로운 형식의 창작 융복합 공연이 울려온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자체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스토리텔링 자원이 전문 예술인들의 손을 거쳐 고품격 문화로 재탄생하고 있다.

6일 국내 문화·예술 업계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5시 영주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스크린 영상과 무대 위 라이브 연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

는 클래식 음악극 '아버지의 계절'이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의 '2026년 공연예술지원사업' 선정작으로, 경상북도가 후원하며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칸토펬르테가 주관한다.

특히 해당 지역 예술가들이 고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주시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첫사랑, 영주'의 스토리에 애니메이션 영상과 클래식 음악, 한국가곡 등이 더해졌다.

/이청하 기자